

뉴에이지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관상 기도, 이머징 교회
성경말씀: 고후11:1-4

요즘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뉴에이지 시리즈를 갑자기 하고 있다.

지난 세 시간, 뉴에이지, 새 시대, 물병자리 시대, 천지개벽, 뉴에이지의 종말 현상들

뉴에이지: 적그리스도의 때, 바벨탑에서 시작된 바빌론 문화가 꽃을 피우는 전성기

다양한 현상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심볼리즘, 전시안, 피라미드, 무지개, 불사조, 앵크 십자가,
천주교, 종교 통합

뉴에이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

핵심 믿음: 모든 사람이 신, 대다수가 그것을 인식을 못함. 자신이 신임을 의식하려면 고도의 영성 훈련
기법이 필요하다. 뉴에이지 초능력 발휘 영성 훈련: 명상, 요가, 만트라, 최면, 유체이탈

모든 기법의 공통점: 정신을 잃고(자기를 버리고)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것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 기도, 묵상, 사회생활, 가정생활

뉴에이지에 빠지면 구원 불필요, 자신이 신이므로

오늘 < >,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님의 말씀: 마24:23-24

오늘날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호4:6).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확실한가? 시간을 내서 탐구해야 한다.

특히 젊을 때 신학원 공부 등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엣그제 저녁, 존 맥아더, 왜 성경 강해뿐만 아니라 세상 징조, 현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느냐는 질문,
성경을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된다. 교리가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교회 폐쇄, 유명 목사들의 음행, 가정 파탄, 종교 통합(조엘 오스틴) 등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사는 성경에 비추어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성경을 바로 읽으면 지금은 여러 징조들로 미루어보아 인류 역사 종말의 시기가 확실하다.

이런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을 구별하는 것

요일4:1-3, 그리스도에 대해 부인하는 자들이 생긴다.

오늘 말씀 배경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행18:1-7, 적어도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 선포(18:11)

최고의 목사 겸 교사,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킴(2)

그런데 그가 떠난 뒤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새겨났다. 바울의 요약

뱀이 등장하여 이들을 속임(3), 창세기의 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결과: 단순함에서 떠남,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수용함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그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하였고 그들은 곧바로 쓰러져 버림(13)

놀랄 일이 아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변형한다(14) (*)

사탄의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변형한다(15).

즉 무언가 신비스럽고, 나도 하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을 속인다.

성경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 단순하다.

한 분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는 것이다. 더도 없고 덜도 없다.

예배당, 예배, 모임, 교제, 식사 모든 것이 단순하다. 복잡하거나 휘황찬란하지 않다.

매일 먹는 만나와 비슷하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민11:5-6

예배가 밋밋하다. 이집트에서는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휘황찬란하였다.

성막, 어떤 형상도 안 됨, 너무나 밋밋함

출32, 결국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라 하면서 경배함

창3:5-6 이브의 선악과,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요일2: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어떤 특별한 것들을 내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겠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죽어라고 일하는 것
2. 각종 신비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방언, 입신, 예언, 마인드 컨트롤

뉴에이지의 다른 예수

육적 진화, 영적 진화(*), 신이 된다. 불교는 부처, 뉴에이지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영성 훈련을 통해, 이것이 뉴에이지의 다른 예수이다.

다른 예수

구원의 기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인격체,

처녀 탄생, 성육신, 유대 땅, 베들레헴 출생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 처형, 하나님의 어린양, 피를 흘리고 죽음 사흘 동안 몸이 무덤에 있다가 아버지의 권능에 힘입어 무덤에서 부활하심 영체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심 처소를 마련하신 뒤 다시 올리브 산으로 오실 것이다.

천년왕국 통치,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통치함

유일하신 구원자, 행4: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 침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초대 교회에 가장 극심한 이단: 영지주의자들, 성육신 부인, 그리스도의 부활 부인

침례를 받을 때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갔다고 주장함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영체로 부활하였다.

작금의 뉴에이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대신 속죄가 목표가 아니다, 다른 여러 선각자들처럼 구원의 길을 보여 주는 한 인물, 도를 터득하여 그리스도가 되었다. 인도로 간 예수 등(*)

뉴에이지 운동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가 말한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한다(*).

뉴에이지: 모두가 신이다의 신을 대개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뉴에이지의 거듭남(*): 그리스도 인식

모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힌두교, 불교의 성불과 같다.(*)

천주교의 그리스도 교리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요한복음 강해 21, 8.)[제1편 p.309#795] (*)

성 어거스틴의 교리

이것은 1994년에 발행된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교리 문답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시다면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한 교리는 현재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의 신비적 가르침입니다.
뉴에이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크게 누구나 영성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 유행한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 사상을 서구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불교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소위 열반의 세계에 이르러 부처가 된다는 것임. 불교나 천주교나 그 근원이 다 고대 바빌론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상을 지니고 있음.

1994년에 미국의 타임지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를 베스트 셀러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 책은 교황 바오로 2세가 공인한 책으로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가 믿는 바를 있는 그대로 모두 보여 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제목으로 3권으로 나누어 출판했습니다(색인 등을 제외하고 총 981 쪽이며 성바오로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음).

성경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변형시킨 데: 천주교, 천주교의 그리스도는 항상 아기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아기, 어른 예수는 무서운 존재 그래서 어머니 마리를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야 함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천주교는 늘고 성경적 기독교는 줄어들 것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바빌론 문화의 전성기가 오기 때문에
현대 성경 역본들의 문제, 다 천주교 소수 사본, 기독교의 근간을 흔든다.

관상 기도

뉴에이지 기법의 특징, 호흡 조절, 참선 과정 등을 통해 나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 (*), (*)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열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교회에는 은사 운동, 신비주의, 영성 수행, 프레스 디아스, 알파 코스, 종교 일치 운동 등 로마 카톨릭교회가 주도하는 종교 의식 및 운동이 하나둘 침투하여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운동이나 종교 의식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명백히 왜곡하고 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성령 운동(사역)이나 영성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내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일부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도입하여 시도해 버린다. 하지만 국내 많은 교회에서 부흥과 영적 성장이 라는 명분을 내걸고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영성 훈련이나 수행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도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뿐이다.

관상 기도: 현시대 영성 훈련의 대표적 수행 방법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지난 20년 정도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관상 기도’

관상 기도란 무엇인가?(*)

〈나무 위키〉: 관상(觀想) 기도란 마음의 상[거울]을 보는 기도라고 정의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관상(觀想)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불교] 수행의 한 가지로서 마음을 오로지 일정한 대상에 기울여 어떤 상념을 일으키게 하여 번뇌를 없애는 일, 2. [종교 일반] 신(神)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일, 이런 의미의 관상(觀想)은 수명이나 운명 따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 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인 관상(觀相)과는 완전히 다르다.

관상 기도 개요

1. 관상 기도의 핵심은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의 상(想)을 보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상 기도는 기존에 하던 기도, 즉 신에게 의지하고 소리 내어 부탁하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나를 다시 돌아보고 신에게 감사와 반성 그 이외에 향심 기도(Centering prayer) 를 바칠 수 있는 기도로 정의된다.

향심 기도(向心祈禱) 혹은 센터링 기도란, 한마디로 성경이나 시편 등을 읽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를 하면서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충만하여 관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 방법이다.

관상 기도는 한국의 개신교가 타락하면서 교회는 외적 성장보다는 내적 성장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여러 목사들에 의해 2000년경부터 국내에 소개되었다.

2. 관상 기도(Contemplative prayer): 관상 기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님과 의 일치(communion, 친교, 합일)를 지향하는 기도이다.

3. 이교도 종교 예식?

국내 개신교도들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 통성 기도 등 입으로 소리 내어 하는 기도이다. 그러나 소리 내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마음의 상[생각 혹은 상상]을 바라보는 기도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신비주의적인 해탈, 즉 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과 비슷하다는 논란이 국내 교회에서 제기되어 왔다.

4. 관상 기도를 하는 방법(*), 참선하는 것과 동일하다.

관상 기도에 정해진 방식이나 전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적인 관상 기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편안하고 조용한 자리에 앉아 편히 숨을 쉬며 안정을 취한다.
2. 내적으로 마음의 초점을 맞춘다.
3. 마음과 정신이 연결되었을 때 혹은 그렇게 되었다고 느낄 때 동방 정교회에서 하는 예수 기도를 외운다. (*)

〈위키백과〉 ‘예수 기도’ 항목: 예수 기도는 동방 정교회 내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짧은 기도이다.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무척 짧고 단순명료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는 동방 정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중적인 기도이며 종종 개인이 금욕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암송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 기도는 헤시카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은수자들의 전통적인 기도 생활의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나무 위키〉 ‘헤시카즘’ 항목: 헤시카즘은 ‘조용함’, ‘침묵’을 중시하는 동방 정교회의 영성 전통을 뜻하며 이것은 주후 3세기 북아프리카에서 은둔하며 수도 생활을 실천하던 사막의 교부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환경, 호흡법 등을 통해 외면과 내면을 평온하게 한 상태로 예수 기도와 묵상을 거듭하여 궁극적으로는 신과의 합일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로마 제국 후반에는 그리스 북부의 아토스 산에서 수행하는 수사들이 이것을 행하였는데 이들은 묵상을 통해 신이 내뿜는 빛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폐제 음악 등을 부르며 마친다.

〈나무 위키〉 ‘폐제’ 항목: 폐제의 주된 특징은 라틴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진 짧고 단순한 곡을 반복적으로 노래하며 묵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폐제가 지루하다는 이들도 있으나 반대로 반복되는 노래로 인해 평안과 깊은 성찰을 이루는 이들도 있다.

단순하게 단어나 음악을 반복하는 것은 은사주의의 학습 방언이나 이교도들의 만트라 기법이 적용될 때 사람들을 정신을 잃게 하여 무아지경으로 밀어 넣는 도구이다.

관상 기도의 유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도원

로마 카톨릭 수도원의 관상 기도 방법

1.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한다.
2.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굳은 몸을 풀어 준다. 그리고 편한 자세로 앉는다.
3.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4. 대기 중의 공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한다.
5. 그리고 호흡의 리듬을 느리게 조정한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비율을 약 1:2로 하는 것이

좋다.

6. 이렇게 하는 동안 내적으로는 마음의 자리에 초점을 맞춘다.

7. 이러한 자세에서 마음과 정신이 연결될 때 기도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즉 '예수 기도'를 한다). '주여' 또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를 반복한다.

비판: 불교나 뉴에이지 추종자들의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호흡이다. 그래서 요가를 할 때도 단전 호흡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호흡법이 바로 로마 카톨릭 수도원에서 관상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런 것을 통해 영, 외계인, 악령, 신에 의해 인체의 통제를 받는 병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단전 호흡, 뇌 호흡, 요가 명상, 불교의 참선, 다양한 종류의 마인드 컨트롤 수행은 성경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교도들의 영성 훈련 기법, 즉 마귀들과 합일하는 수단이다.

대기 중의 공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호흡 훈련을 하라는 것은 이교도들의 가르침이며 성경은 이런 것을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천주교 수도원에서 나와 기독교로 흘러 들어온 관상 기도 수행 방법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것은 이교도들 가운데 팽배한 접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관상 기도의 사상적 배경: 중세 신비주의

관상 기도의 사상적 배경은 중세 신비주의이다. 많은 학자들은 관상 기도의 뿌리가 중세 초기 중동 지역의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막 교부들에게서 기원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 수도사들의 명상법과 생활 규칙은 고대 힌두교와 불교의 수행자들의 기법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수행하던 4세기의 이 은둔 수도사들은 세속을 떠나 침묵과 관상을 강조하며 인간이 모든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근심과 걱정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포기하고 세속과의 접촉을 최대한 단절한 채로 억제된 수면과 고행, 그리고 노동을 통해 수덕((修德), 즉 덕을 닦는 일에 힘썼다. 이러한 중세 신비주의는 이미 초대 교회 교부인 오리겐의 사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모든 만물이 신적 이성을 통해 원래 존재로 회귀하며 이것이 바로 만물의 우주적 순환 과정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필연적으로 범신론적이고 신비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중세 신비주의자들: (*)

빙엔의 힐데가드(Hildegard of Bingen, 1098-1179), 시에나의 성 캐더린(St. Catherine of Siena, 1327-1380), 에크하르트(Meister Johannes Eckhart, 1260-1327),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de Clairvaux, 1090-1153), 노리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 1342-1416) 등과 같은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관상 기도의 또 다른 사상적 배경은 종교 개혁 시대와 근대 이전의 신비주의이다.

로올라(Ignatius von Loyola, 1491-1556),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 1515-1583), 십자가의 요한(John of the Cross, 1542-1591),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 1614-1691), 폭스(George Fox, 1624-1690), 귀용 부인(Madame Guyon, 1648-1717) 같은 인물들에 의해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은 지속되었다.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심각한 이단으로 볼 수 있는 수사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같은 책은 두란노 출판사가 출간하였는데 이것은 관상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등의 신비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기대하라.

-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분
-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싶은 분

로렌 커닝햄, 예수 전도단

현시대 관상 기도의 사상적 배경은 레노바레(Renovare) 영성 운동이다. 레노바레 영성 운동은 원래 웨이커 교도인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에 의해 1988년부터 전개된 영성 훈련 운동이다. 웨이커 교도들의 전통적인 믿음을 따라 포스터는 모든 인간의 내면세계에 '내적 광명'(Inner light)이 있다고 믿으며 내적 자아 체험을 통해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레노바레 운동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관상적 차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단순한 정적 침묵이 아니라 관조적 신비 상태로서의 침묵을 통한 기독교적 만트라(mantra)의 실천과 호흡 기도를 강조하며 무념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관상 기도의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OO 목사, 레노바레(*)

이머징 교회

지금까지 다른 예수, 다른 영

이제 다른 복음, 이머징 교회들의 출현(*), (*), 이머징의 뜻: 새롭게 떠오르다

이머징(emerging) 교회 역시 앞으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잘 알아야 한다. 뉴에이지 현상이다.

이머징 교회는 이제 막 출현하고 있고 워낙 다양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머징 교회들은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 등 서구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문화에 적응하려는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의 특징은 전통적인 것을 파괴하고 진정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 한다.

예배에는 "고대 영성" 운동에서 많이 차용하여 양초, 향, 희미한 조명, 주변 음악, 미로, 아이콘, 기도처, 예술, 춤, 명상, 침묵

그러므로 이것 역시 오순절 은사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이것의 기원 역시 카톨릭 신비주의로 보고 있다.

이머징 교회의 특징은 바로 록 음악의 열린 예배이다.

그러나 이머징 예배가 오직 신비주의적 영성을 유포하고, 상대주의적이며, 종교 다원주의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이머징 교회 운동의 의미: 창의적이고 체험적이며 감각적인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선호한다.

예수님 외에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믿는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믿는다.

역사적인 기독교의 많은 교리를 거부한다.

사회 복음

책 영상 웹사이트를 통해 기존의 성경적인 교회들에 침투한다.

포스트모던 크리스천, 뉴패러다임 부흥과 개혁사 (*)

결론

우리 앞에 뉴에이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천주교를 조심하고 친 천주교 모임/교제를 조심해야 한다. 종교 통합

천주교 산물인 관상 기도, 피해야 한다.

새로운 교회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머징 교회, 신비주의, 예배 파괴, 교리 파괴, 종교 통합

우리와 우리 아이들 모두 조심해야 한다.

그 길 고후10:4-5: 4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5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